

## 32년 만에 시중은행 탄생

### - 금융위원회,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결정 -

- ▲ 은행산업 전반의 경쟁촉진 예상 → 소비자 금융접근성 제고, 중신용 중소기업 여신공급 확대 등 소비자후생 증대 기대
- ▲ 최근 금융사고를 감안하여 ‘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’ 중점 심사  
→ 시중은행으로서의 내부통제 기반 구축과 이행실태 지속 점검

금융위원회(위원장 김주현)는 2024년 5월 16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·경북권 중심의 지방은행인 **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**을 위한 **은행업 인가**를 의결하였습니다.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**32년**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.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한국씨티은행, KB국민은행, SC제일은행(가나다 순)에 이은 **일곱 번째 시중은행**입니다.

정부는 2023년 7월 5일 **은행산업의 경쟁 촉진**을 위해 **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**을 추진하겠다고 발표(「은행권 경영·영업관행·제도 개선방안」)한 바 있습니다.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식·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자 2024년 1월 31일 「**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 방식 및 절차\***」를 발표하였습니다.

\* (인가방식) 은행법(제8조)에 따른 은행업 인가내용의 변경 (인가절차)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에 대해 심사하고, 예비인가를 생략가능

이에 따라 **대구은행**은 지방은행 중 최초로 은행법 제8조의 은행업 인가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인가내용을 변경하는 **은행업 본인가**를 금융위원회에 **신청**(2024.2.7.)하였습니다.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**외부평가위원회** 심사 등을 거쳐 **인가요건**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. 그 결과 최종적으로 대구은행은 **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요건\***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.

\* ①자본금(자금조달방안) 요건 ②대주주(주주구성 계획) 요건 ③사업계획(내부통제 체계 적정성 등)의 타당성 요건 ④임원 요건 ⑤인력·영업시설·전산설비 요건 등

이번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으로 새롭게 진출하는 영업구역 중심으로 은행간 경쟁이 촉진되고, 이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가가 기대됩니다.

대구은행은 수도권 및 충청·강원 등에 향후 3년간 영업점 14개 등을 신설할 계획이며, 해당지역 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또한, 대구은행은 자체 비대면채널(App) 고도화, 외부플랫폼과 제휴 확대 등을 통해 **고객 접근성**을 개선하고, 비용을 절감하여 낮은 금리의 다양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.

아울러, 그동안 지방은행으로서 축적한 ‘**관계형 금융**’ 노하우(knowhow)와 영업구역 확대에 걸맞은 **리스크관리 역량**을 기반으로 **중신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**에 대한 **여신규모**를 확대할 계획입니다. ‘**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\***’으로서 시중은행 전환 이후에도 대구·경북권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**지역경제 활성화**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.

\* 본점은 대구광역시에 둘 것을 부대조건으로 부과

이번 대구은행 인가 심사과정에서 중점을 두고 심사한 부분은 대구은행의 ‘**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**’ 관련 사항입니다.

대구은행은 작년 금융사고 이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추진해 왔습니다. 먼저,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**증권계좌 임의개설 사고**에 대해서는 업무단계별 분석을 통해 **맞춤형 대응방안\***을 마련하였습니다.

\* 증권계좌 연계예금 개설시 알림톡 발송 등 고객통지 강화, 신분증 진위확인 및 계좌 비밀번호 입력단계 추가, 자점감사 확대 등

특히,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「**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\***」(22.11월)에 대해서는 금융사고 및 시중은행 전환 등을 고려하여 **국내은행 중 가장 빠르게 이행**(21개 과제 중 19개 이행)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전반적인 **준법감시 역량 강화**를 위해 **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, 상시감시 확대·체계화 등 준법감시체계를 개편\*\***하였습니다.

\* (주요내용)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개선을 위해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,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등

\*\* 준법감시인에 대해 명령휴가 권한 부여, 내부고발제도 개선(포상금 증액 1억→10억), 준법감시부 주관 영업점간 교차점검제도 매월 실시 등

또한, DGB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조직문화 정착 노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, 이와 관련 대구은행 주요 경영진은 전사적인 쇄신과 금융사고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**확약서도 제출**하였습니다.

앞으로 제도 개선사항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고 일선 현장까지 준법경영 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인가 이후 내부통제 개선사항 관련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인가 부대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. 금융당국은 보고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필요시 보완·개선 등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.

담당 부서	금융산업국 은행과	책임자	과 장	이진수 (02-2100-2950)
		담당자	사무관	김경호 (02-2100-2953)
	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	책임자	국 장	정우현 (02-3145-8020)
		담당자	팀 장	김지웅 (02-3145-8022)

**붙임**    **주요 QA**

**1.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는?**

- 정부는 신규플레이어 진입을 통한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\*하였음
  - \* 「은행권 경영·영업관행·제도 개선방안」 (23.7.5일)
  - 은행업 영위 경험이 있는 주체가 업무영역·규모 등을 확대하는 것으로, 단시일 내 안정적·실효적 경쟁 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
- 대구은행은 현재의 제한된 지역 중심 영업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음
  - 지방은행의 영업구역 제한을 벗어나 다수의 고객이 분포한 수도권 및 지방은행이 없는 충청·강원 등으로 영업을 확장하여 새로운 성장기회를 모색하고,
  - 관계형 금융 등 지방은행의 장점을 살린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여 시중은행으로 안착을 도모할 계획으로 알고 있음



**2. 시중은행 전환시 법령상 규제 측면에서 달라지는 점은?  
해당 요건만 심사하지 않고 모든 요건을 심사한 이유는?**

-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은 법령상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\*(15% → 4% 초과보유 금지)와 최소 자본금 요건(250억원 → 1,000억원)에서만 차이가 있음
  - \* DGB금융지주(대구은행 주식 100% 보유)의 주주 중 4% 초과보유 비금융주력자는 없음
- 그러나,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은 **중요사항의 변경**인 만큼 **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**에 대한 **심사**가 필요하다고 판단\*함
  - \* 「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」 보도자료('24.1.31일) 참고
  - 특히, 종전 대비 영업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여 **사업계획, 내부통제 등 경영 관련 세부심사요건** 등은 보다 **면밀히** 심사하였고,
    - 심사요건의 타당성 점검을 위한 절차인 **외부평가위원회, 이해관계자 의견수렴** 등 필요한 절차를 **생략없이 모두 진행**하였음

**3.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?**

- **대구은행** 입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**영업구역이 전국으로 확대**되는 것이며,
  - \* 현재 대구은행은 수도권, 경상도권에서만 영업중(강원, 충청, 전라, 제주지역은 현재 영업구역이 아님)
  - 또한, 그간 시중은행 대비 **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**해왔던 **부담도 완화**될 것으로 예상함
- **새로운 영업구역** 중심으로 은행간 **경쟁이 촉진**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따른 **소비자 후생 증가**도 기대됨
  - 수도권 및 충청·강원 등에 향후 **3년간 영업점 14개**를 신설할 계획으로, 해당지역 **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이 제고**될 것으로 예상
  - 대구은행은 **중신용 중소기업 등 대상으로 자금공급을 확대**하고,
    - 수도권 등 영업을 통해 **이익창출 능력을 제고**하여 **대구·경북권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**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속 노력할 계획임
  - 또한, **자체 비대면채널 및 외부플랫폼의 적극 활용**을 통해 **비용을 절감**하여, **낮은 금리**의 다양한 상품을 **소비자에게 제공할** 계획으로 알고 있음

**4. 시중은행 전환으로 거점지역인 대구·경북권 기업에 대한 대출 축소 등 전반적인 자금공급이 감소하는 것 아닌지?**

-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 이후 수도권 영업을 통해 이익창출능력을 제고하고,
  - 이를 지역소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임
-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영업을 확대함에 따라 대구·경북권에서의 여신 '비중'은 감소할 수 있으나,
  - 대구·경북권 여신 '공급규모'는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음

**5. 최근 대구은행의 연체율이 상승하고, 자본비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, 건전성 악화 우려는 없는지?**

- 대구은행의 現 자본적립 수준 및 자본확충 계획 등 감안시 건전성 악화 우려는 크지 않아 보임
  - 현재 대구은행은 자본적정성 관련 규제비율 대비 충분한 여유자본을 적립하고 있음

**<표> 주요은행 자본비율 현황('23년말 기준)**

(단위 : %, %p)

	보통주자본			총자본		
	규제비율(A)	은행비율(B)	버퍼(B-A)	규제비율(C)	은행비율(D)	버퍼(D-C)
대구은행	7.00	13.59	6.59	10.50	16.53	6.03
신한은행	8.00*	14.62	6.62	11.50*	18.08	6.58
하나은행	8.00*	16.06	8.06	11.50*	17.93	6.43
우리은행	8.00*	13.16	5.16	11.50*	16.03	4.53
국민은행	8.00*	14.91	6.91	11.50*	18.08	6.58

\* 시스템적 중요 은행(D-SiB)의 경우 1%p 추가자본 적립 필요

- 또한, 시중은행 전환 이후 DGB금융지주 증자를 통해 5년간 7,000억원의 자본을 확충할 계획으로 알고 있음
  - DGB지주는 신종자본증권(4천억원) 및 회사채(2천억원) 발행, 유보이익 등을 활용하여 재원을 조달할 계획임
  - ※ DGB금융지주 신용도 AAA, '20년 이후 신종자본증권 6,160억원 발행
-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 이후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관리를 고려하여 자산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,
  - 신용평가 모형 고도화, 기업여신 자동심사 시스템 등을 통한 본점 통할 기능 강화 등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음

## 6.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었다고 보는지?

대구은행은 그간 내부통제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추진하여, 시중은행으로서 영업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반은 구축한 것으로 평가됨

① 최근의 금융사고 유형을 분석하여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함

\* 증권계좌 연계예금 개설시 알림톡 발송 등 고객통지 강화, 신분증 진위확인 및 계좌비밀번호 입력단계 추가, 자점감사 확대 등

② 「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\*」의 조기 이행(21개 과제중 19개 이행), 준법감시인 역량 강화\*\* 등 내부통제체계를 개선함

\* 금감원-은행권이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개선을 위해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,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등을 마련(22.11월)

\*\* 명령휴가 권한 부여, 준법감시부 주관 매월 영업점간 교차 점검 실시 등

③ DGB금융지주도 제도 개선사항이 실효성있게 작동되어 내부통제가 조직문화로 정착되기 위한 노력\*을 병행중이며

\* 대구은행 이사회 內 내부통제혁신위원회 설치, 그룹경영현안회의에서 계열사 내부통제 현황 매월 점검, 지주 준법감시인 현장점검 등

- 대구은행 주요 경영진은 내부통제 문화 정착, 금융사고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**확약서를 제출**하였음

인가 심사를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에서도 대구은행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